

The Bond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10. 29

10월 FOMC Review: 창문 밖을 내다보며 현실 파악 중(interrogating reality)

채권 | 우혜영 | whydele@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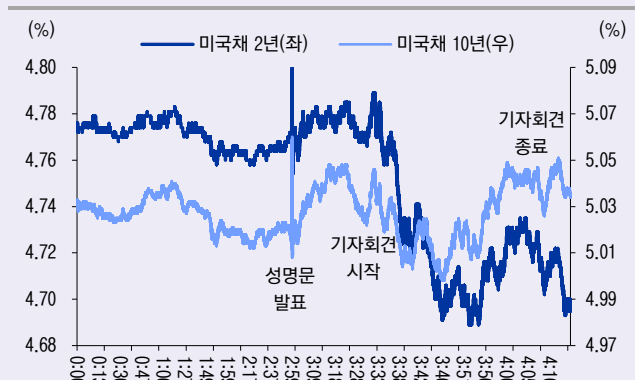
9월 인상 이후 타이트해진 신용 여건 vs 여전히 양호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

10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는 現 수준인 3.75%~4.00%로 동결되었다. TGIF vol. 194(2026.10.23)에서 언급했듯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었다. 리사 쿡 이사와 클리블랜드 연은 베스 해맥 총재가 25bp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해맥 총재는 7월 FOMC 회의 당시 인상 소수의견 피력한 위원이라 이미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예상되었지만 쿡 이사는 다소 의외였다. 성명문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①경제활동 상황 평가(solid→strong), ②9월에 신규 삽입된 ‘오늘 결정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시의적절하게(timelier) 되돌리는 데 도움’에서 ‘오늘 결정’을 ‘추가 정보의 축적(the accumulation of more information)’으로 수정 등이다. 통화정책 결정 외에 2027년 FOMC 회의 일정 관련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었다. 8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점은 동일하나 이 중 한 차례는 정책금리 결정 없이 통화정책 전략에 초점을 맞춘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케빈 워시 의장은 장기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설명했고 2028년에는 이러한 회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단발성 인상(one and done) + 올해 12월 인상 전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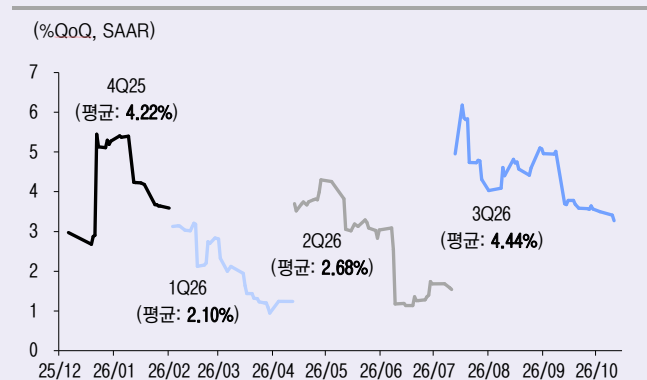
워시 의장은 긴급 상황이나 위기가 아닌 이상 포워드가이드언스를 믿지 않으며, 향후 발표될 데이터에 따라 연준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12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역시 당연히 부재했다. 오히려 워시 의장의 발언 가운데 ‘신용 여건(credit conditions)이 타이트해졌고 시장참가자들이 자본 배분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불안정한 세계정세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고무적이다’, ‘연준 통화정책 처방(9월의 금리 인상을 통한 완화 축소)이 효과가 있었다는 데 대다수의 동의가 있었다’ 등은 바들기파적으로 해석되었다. 다만, 동시에 금융 여건(financial conditions)이 경색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다는 발언과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전망(고용 여건은 긍정적이라 평가, 견조한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 3분기 GDP성장률 3% 상회 예상, 기업 투자는 두 자리 수의 증가율 기록 예상 등)을 내놓은 것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남겨 놓았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견조한 투자와 소비에 기반한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높은 상태로 계속될 지 등이 향후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다면 12월 FOMC 회의(12/8~9)에서 인상이 단행되면서 9월 점도표로대로 전개될 것이다. 일부 가계·기업의 금융 및 신용여건 악화, 높은 수준의 모기지금리에 따른 주택시장 부진, 고금리 지속 시 재무부 이자 지출 비용 부담 확대 등은 추가 인상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므로 12월이 마지막 인상이라는 전망 역시 유지한다.

그림1 장중 미국채 금리 추이



자료: Infomax,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GDP Now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통화정책성명문 변화

2026년 9월 FOMC	2026년 10월 FOMC
<p>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approved the following statement for release by a 12 – 0 vote: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at a solid pace. While uncertainty remains elevated owing, in part, to geopolitical developments, 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 Productivity growth is strong, and capital investment is robust. Job gains have kept pace with the workforce,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changed little.</p>	<p>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approved the following statement for release by a 10 – 2 vote: Economic activity is expanding at a strong pace. While uncertainty remains elevated owing, in part, to geopolitical developments, 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 Productivity growth is strong, and capital investment is robust. Job gains have kept pace with the workforce,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changed little.</p>
<p>Inflation remains elevated. Today's policy action will support a timelier retur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 The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p>	<p>Inflation remains elevated. The accumulation of more information will help the Committee determine the policy stance appropriate to ensure a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 The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p>
<p>The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to 3-3/4 to 4 percent, in support of the Federal Reserve's dual mandate. The Committee is continuing its policy of maintaining ample reserves in the banking system.</p>	<p>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3-3/4 to 4 percent, in support of the Federal Reserve's dual mandate. The Committee is continuing its policy of maintaining ample reserves in the banking system.</p>
-	<p>Voting against the monetary policy action were Lisa D. Cook and Beth M. Hammack, who preferr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at this meeting.</p>

주: 경제 평가 문구 위계 - 위축(contraction) < 완만한(modest) < 완만한/적정한(moderate) < 견고한(solid) < 강한(strong)

자료: Fed,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CME Fedwatch(9/14)

Name	Position	Hawk Scale	2026	2027	2028
Most Dovish					
Bowman	Board		✓	✓	✓
Jefferson	Vice Chairman		✓	✓	✓
Powell	Board		✓	✓	✓
Williams	New York		✓	✓	✓
Paulson	Philadelphia		✓	✗	✗
Daly	San Francisco		✗	✓	✗
Waller	Board		✓	✓	✓
Barr	Board		✓	✓	✓
Venable*	Atlanta		✗	✓	✗
Cook	Board		✓	✓	✓
Warsh	Chairman		✓	✓	✓
Goolsbee	Chicago		✗	✓	✗
Barkin	Richmond		✗	✓	✗
Collins	Boston		✗	✗	✓
Musalem	St Louis		✗	✗	✓
Kashkari	Minneapolis		✓	✗	✗
Logan	Dallas		✓	✗	✗
Schmid	Kansas City		✗	✗	✓
Hammack	Cleveland		✓	✗	✓
Most Hawk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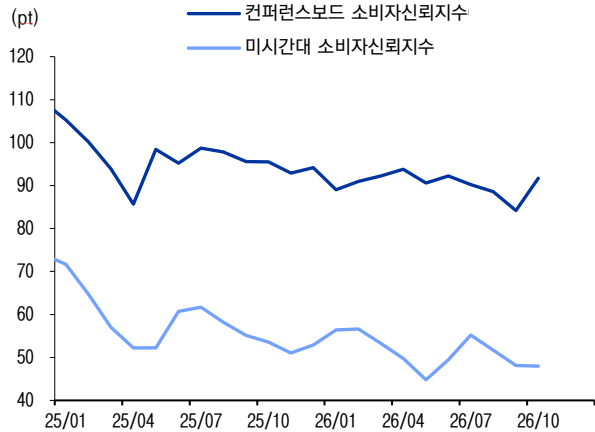
자료: in Touch Capital Markets,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연준 위원들 성향(10/15)

Name	Position	Hawk Scale	2026	2027	2028
Most Dovish					
Bowman	Board		✓	✓	✓
Waller	Board		✓	✓	✓
Jefferson	Vice Chairman		✓	✓	✓
Williams	New York		✓	✓	✓
Paulson	Philadelphia		✓	✗	✗
Daly	San Francisco		✗	✓	✗
Powell	Board		✓	✓	✓
Barr	Board		✓	✓	✓
Venable*	Atlanta		✗	✓	✗
Cook	Board		✓	✓	✓
Warsh	Chairman		✓	✓	✓
Goolsbee	Chicago		✗	✓	✗
Barkin	Richmond		✗	✓	✗
Collins	Boston		✗	✗	✓
Musalem	St Louis		✗	✗	✓
Kashkari	Minneapolis		✓	✗	✗
Logan	Dallas		✓	✗	✗
Schmid	Kansas City		✗	✗	✓
Hammack	Cleveland		✓	✗	✓
Most Hawk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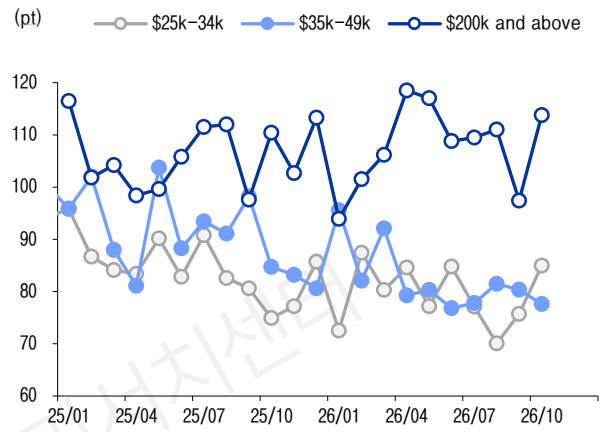
자료: in Touch Capital Markets,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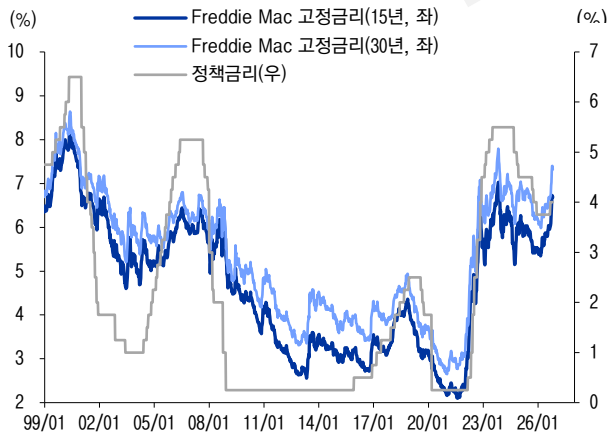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소득별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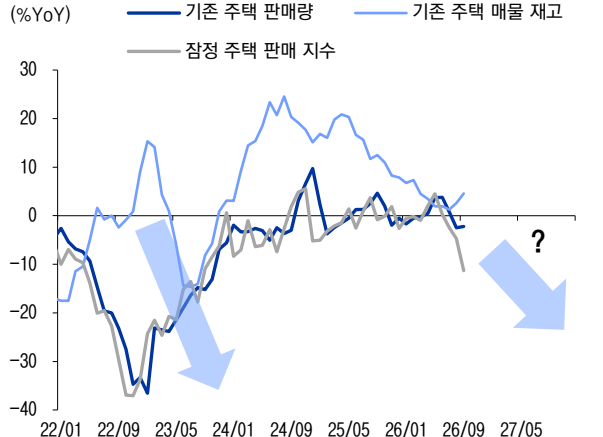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모기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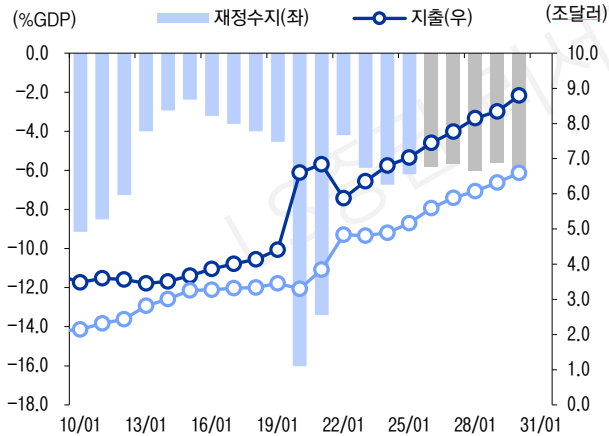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주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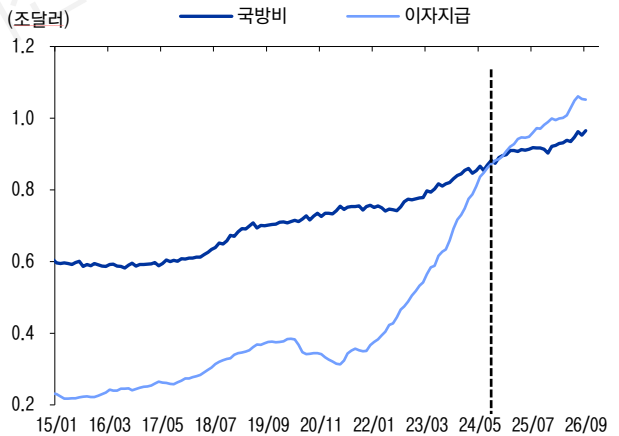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CBO 연간 재정 수지 전망: 이미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자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국방비 지출을 넘어선 이자 지급 목적의 지출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